

어머니 생각

지난 8일은 한국에서 '어버이날'로 지키는 날이고, 오늘은 미국에서 Mother's Day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처음에는 '어머니날'이었는데, 아버지들이 힘을 모아(?) '어버이날'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미국에는 한국과 달리 Father's Day가 따로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 보니, 미국에서 어머니날이 국가 지정 휴일로 정해진 것이 1914년이었는데, 아버지날이 지정된 것은 그로부터 58년 후인 1972년의 일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산행 중에 어느 교우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를 말씀하시면서 "어머니가 위대한 것은 두 개의 심장으로 살아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감수성을 따라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최대 9개월 동안 두 개의 심장으로 살아 본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태중에서 뛰고 있던 심장 하나가 바깥으로 나와 뛰고 있는 것이니, 아버지에게는 없는 연대감이 어머니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는 꿈을 잘 꾸셨습니다. 꿈을 많이 꾸셨다는 뜻이 아니라 꿈을 통해 자식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감하곤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실 데 없는....." 하시면서 무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어머니의 꿈 이야기에 귀를 기울리셨습니다. 나중에는 "무시 할 게 아니며, 신성한 구석이 있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자식과 연결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어서 자식에게 일어나는 일을 어머니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제가 도시에서 자취 생활 할 때에는 전화도 쉽지 않았고 편지도 오고 가는 데 한 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무슨 변화가 있을 때마다 짐을 싸들고 찾아 오셨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거나 자꾸만 제 생각이 나면 험하니 다녀 가셨습니다. 완행 버스를 타고 오실 때면 말미를 하셔서 눈이 쾅해지셨습니다. 그럼에도 고개가 꺾이도록 짐을 이고 찾아 오셨습니다. 그렇게 퍼주기만 하시더니 이제는 정신은 모두 빠져 나가고 꺾이기만 남으셨습니다. 머지 않아 그 꺾이기조차도 볼 수 없게 되겠지요.

전화를 하실 때마다 "몸 건강하냐? 애덜은? 에이헌티 잘 하지? 그럼 됐다"라고 서둘러 끊으시던 어머니의 음성이 그립습니다. 그분은 세상 모두가 나에게 등 돌려도 나를 품어 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려 주시고 이제 그 사랑을 알만 하니 제 걸을 떠나 가려 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의 소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까지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허공에 대고 말해 봅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19년 5월 12일 주일 설교 '더 나은 영성생활'(4)
"그런 하나님은 없다"(There Is No Such God)

찬송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8장(통 9)
기도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성경봉독	마태복음 6장 5-8절을 읽습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봅니다.
말씀묵상	한 사람이 설교 말씀을 요약하여 발표합니다. (10분)
말씀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문 전체를 읽어 주고 자신에게 와 닿는 질문에 답하게 하십시오. 전체 나눔 시간이 90분을 넘지 않게 하십시오. 1.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으면 한가지만 나누어 주십시오. 2. 당신의 기도 생활에 대해 나누어 주십시오. 잘 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부족한 점은 무엇입니까? 3. 하나님에 대해 당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고칠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당신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기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사랑 깊은 사귀기를 누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으로 중보하십시오. 지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의 소식을 나누고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찬송/헌금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통 404)
주기도문	광고 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난 설교문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묵상 안내
www.koinonia2019.com

2019 전교우 여름 수양회

주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순례"
강사	한어권: 임영택 목사(전 협성대 기독교 교육학 교수) 영어권: Sam Lee (Eden Tree Church, CA)
기간	6월 28일(금)-30일(주일)
장소	Potomac Park Retreat & Conference Center (11 Tabernacle Way, Falling Waters, WV 25419)
등록비	4세 이하 무료, 어린이와 청소년 \$50, 청년과 성인 \$80 (교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참가자는 무료입니다)



수요예배

오후 8시 / 본당



찬양과 기도	김영봉 목사
말씀	예수의 비유 김영봉 목사
찬양과 기도	다같이

- '하루 한 말씀' 이번 주 진도는 **출애굽기 7-12장**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진도를 따라 '하루 한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영적훈련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www.koinonia2019.com에 접속하시면 본문에 대한 간단한 해설과 묵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어머니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 오늘과 다음 주일 예배 후 3시 40분에 **새교우반**이 217호실에서 모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일(13일) 오후 7시 30분에 213-215호실에서 정기 임원회로 모입니다. 임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는 화요일(14일) 오전 10시에는 217호실에서 속장 사랑방으로 모입니다. 해당되는 속장님들은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는 수요일(15일)에 수요산책 세 번째 모임을 가집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9시까지 교회 주차장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 지난 주 멕시코 선교를 위한 Bake Sale에서 1800달러의 기금이 모아졌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 Youth 특별 교육 프로그램이 5/18에서 6/15로 연기되었습니다. 차후에 다시 광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문의: 장운식/정도균 교우)
- 다음 주일 예배에서는 세례 및 입교례를 행합니다. KS와 ES가 각각 예배를 드린 다음 예배실에서 세례 및 입교례를 행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 대상: 윤지성, 장민주, 장예지
-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목회위원회로 모입니다. 위원들은 3시 45분에 218호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아공과 멕시코 선교를 위한 버섯 판매를 계속합니다. 고사리는 품절되었습니다. 또한 18일에는 Lotte Mart 앞에 있는 Sunoco Gas Station에서 Car Wash 행사를 합니다. 9시부터 4시까지 있을 이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교부에서 Amplify컨퍼런스(<https://www.amplifyconference.tv/>), 6/25 - 6/26) 참석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참여하기를 희망하시는 교인들께서는 5/26까지 선교부장(장돈식, don.jang@gmail.com)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비와 기간동안의 숙박비는 교회에서 지원하고, 항공비 및 기타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
- 라운서럼에서 1월부터 4월까지 베스트셀러를 알려드립니다. 히가시노 게이코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한동일의 라틴어 수업 그리고 김수미의 수미네 반찬입니다.(라운서럼 신간도서는 삽지에 소개합니다)

- 교우 모두가 '삼중 사귄'(Triple Communion)에 있어서 깊어지도록
- 센터별연합감리교회, 와싱턴한인교회 그리고 체스터브룩연합감리교회를 위해
-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멕시코(김승석 선교사), 남아공(장용석/강준이 선교사), 탄자니아(박윤석 선교사), 기니(Joshua Kim 선교사)
- 육신의 질병 혹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 연합감리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해, Lewis 감독님을 위해
- 한국과 미국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일예배

- **한어 성인예배(KS)**
오후 2시/ 본당
중보기도: 오후 1시 20분 / 208호
- **Youth & ES**
오후 2시/ ROC
- **어린이 (Children)**
오후 2시 / 213-215호

수요일예배

수요일 저녁 8시/ 본당

새벽기도회

토요일 오전 6시 / 본당
다른 요일은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5월 하루 한 말씀 진도표

13일(월)	14일(화)	15일(수)	16일(목)	17일(금)	18일(토)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8장	출애굽기 9장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1장	출애굽기 12장

www.koinonia2019.com에서 매일 묵상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일 친교

날짜	담당속회
5월 12일	길동무속
5월 19일	햇빛속
5월 26일	나눔속
6월 2일	사랑속

회중기도와 성경봉독

날짜	회중기도	성경봉독
5월 19일	이상민	조상훈
5월 26일	유주현	김미연
6월 2일	오은미	최연서
6월 9일	김제국	성영일

안내와 헌금 위원

5월 - 김일명/이애란 6월 - 이해원/이정연

***주일 설교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에
WDCT1310 기쁜소리방송을 통해 방송됩니다.**

(5월5일)

한어성인예배(KS)	167	주일학교	\$17
영어예배(ES)	21	주일헌금	\$285
청소년예배(Youth)	22	주정/월정	\$3,540
교회학교(Sunday School)	13	십일조	\$4,765.85
주일예배 출석 합계	223	사랑/장학헌금	\$450
		감사헌금/기타	\$270
수요일예배(5/8)	29	선교헌금/UFO	\$340
주간예배 출석 합계:	252	합계:	\$9,667.85

제자반

- **속장사랑방**(인도: 김영봉)
지정 화요일 오전 10시/ 217호
지정 화요일 저녁 7시 30분/ 217호
- **여성성경필사나눔반**(인도: 도현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213-215호

2019년 5월 12일 | 부활후 넷째 주일 아버지 주일 본당 / 2:00pm

사회: 김영봉 목사

지휘: 최인달

피아노: 이애령 / 오르간: 김성은

전주 Prelude		오르간
촛불 점화 Lighting the Candles		말은이
● 경배 찬송 Hymn of Invocation	“하늘에 계신” 635장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다같이
●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다같이
● 개회 찬송 Hymn of Praise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8장(통9) Holy, Holy, Holy! Lord God	다같이
● 신앙 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다같이
회중 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윤흥노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6장 5-8절 Matthew 6:5-8	김옥정
찬양 Anthem	“어머님의 노래”	성가대
설교 Sermon	‘더 나은 영성생활’(4) “그런 하나님은 없다” There Is No Such God	김영봉 목사
응답의 기도 Prayer of Reflection		다같이
● 송영과 봉헌 Doxology & Offering	“나의 생명 드리니” 213장(통348) 1절 Take My Life, and Let It Be	다같이
목회 기도 Pastoral Prayer		김영봉 목사
특별찬양 Special Anthem	“하나님의 은혜”	나구용 목사
● 결단의 찬송 Hymn of Commitment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통404) The Love Of God is Greater Far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김영봉 목사
인사와 광고 Greeting & Announcements		김영봉 목사

“Sanctuary”

- 표에서는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up as you are able.
헌금은 예배당 안에 있는 헌금접시에 드리십시오.
Please place your offering into the trays in the chapel.